

관련기사 2면

# 김천시 눈먼 행정... 무허가 업자 하루 수익 5천만 김충섭 김천시장 직접 나서 사업장 영구폐쇄하라

2025

ASPC정신화의  
경주유치



## 제11회 11th Chilgok Nakdong River Peace Festival

# 칠곡낙동강평화축제

### 제15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2024.10.04(금)~2024.10.06(일)  
칠곡보생태공원 및 왜관시가지



<p><b>10.04(금)</b> 군문화 공연 동행 개막식 축하공연 국제평화도시(ICP) 선포식</p> <p><b>10.05(토)</b> 호국보훈장기대회 제9회 어린이 평화 풍요제 군문화 공연 피스 음악회 with 함곡</p>	<p><b>10.06(일)</b>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군문화 공연 칠곡 피스뮤직페스타</p> <p><b>전투전승행사</b> 군문화 공연 헬기 축하 비행 최신 군무기 전시</p>	<p><b>10.05(토)~10.06(일)</b> 힐링아시아 거리예술제 205 싱(sing) 페스타</p> <p><b>개막식</b> 205 레트로 콘서트</p>
<p><b>참가공연</b></p> <p>YB, 은가은, BewhY, 김태우, 김창완밴드, 구창모, 슈벨맨</p> <p>STANDING EGG, 옥상달빛, 군문화 공연, 헬기 축하 공연, 최신 군무기 전시, 문교 합승 체험, 헬기 탑승 체험</p>	<p><b>왜관시가지</b></p> <p>비스타, 스페이스 에이, 버거형, 구수민</p>	

주최 | 경상북도 칠곡군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 | 칠곡문화관광재단 제2차전사령부

경북도의회 한가위 따뜻한 정 나뉜다

경북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에 따라 관내 구호자 선거관을 찾아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11일 안동의료원

을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 체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최병준 부의장, 관광택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도의원,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윤종호 대변인이 함께 했다. 의료현장 점검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천시 눈먼 행정... 무허가 업자 하루 수익 5천만...

희림개발 배재라식 불법영업 1년4개월 영업이익 합 200억

1면에 이어

김천시 눈먼 행정 무허가 업자 배불리게 하고 있다. 김천시와 골재채취 업체간 뇌주기의혹과 저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가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위 높은 강력 처벌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는 김충섭 김천시장 이 나서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 사업장을 영구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김천의 골재채취 기업 희림개발은 1년 4개월 동안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 시는 2021년 9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시작으로 골재채취법 위반, 농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토사반출계획 위반, 사업장 가동 중지 통보 등 수많은 행정조치를 내렸다. 행정조치에도 희림개발이 골재채취 공장을 가동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시가 내린 행정조치는 통보나 과태료 징수, 고발이 고작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업자 배정 영업을 하게 만든 꼴이다. 제보자는 희림개발에서 생산된 골재는 하루 120여대의 25톤 트럭이 대구경북 수요처로 나간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 골재는 품귀현상으로 대당 가격은 40만 원 이상이다. 골재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하루 5000여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벌금은 고작 골재채취법 위반 5000만 원 이하, 농지법 위반 5000만 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위반 3000만 원 이하이다. 하루 수익에 비하면 벌금과 과태료는 조족지혈이다.

희림건설 대표는 "영업허가가 종료 된지 알고 있다.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슬러지를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의 기계장치는 지난달 7일 매각, 공장이 가동되는지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는 "아직 슬러지 등 처리할 부분이 있어 완전히 매각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해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천시 산림복지과에 따르면 희림산업은 김천면 도평리 일대 신축 건축신고를 하고 2만7507㎡의 절토를 허가받아 건축신고를 마쳤다. 희림산업의 불법영업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애초 허가량의 20배인 50~70만㎡를 불법으로 절토, 골재채취 원료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근거로 "수 년동안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3차례에 걸쳐 토사반출 계획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통지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이다. 향후 계획으로 "추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뒷북행정이다. 김천시는 오히려 성토한 조마면 신왕리 조마신왕지구에 폐기물을 묻었다는 제보가 있어 지난달 26일 골작업으로 확인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이같은 행동에 제보자는 즉각 반박했다. 제보자는 사전 담당자와 희림개발과 협의한 흔적이 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해 사전 유치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제보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골재를 사용한 업체를 수사하고, 불법 영업 이익은 세무서가 철저히 조사, 수익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희림개발은 제보자를 경찰에 신고, 불법행위를 감추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여은 기자



1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내일학교 초등 제2회·중학 제9회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균 70세' 맘껏 불러본 '선생님' ...

대구내일학교 만학도 112명 졸업

대구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112명이 만학의 꿈을 이뤘다. 대구교육청은 11일 교육청 행복관에서 '대구내일학교' 졸업식을 열었다.

대구내일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이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날 졸업식에는 지난해 10월 입학해 1년 과정을 마친 초등과정 졸업생 42명, 2022년 10월 입학해 2년 과정을 마친 중등과정 졸업생 70명 등 112명이 참석했다. 졸업생 가운데 최고령 학습자는 1933년생인 91

세, 최연소 학습자는 1967년생인 57세이며, 평균 연령은 70세다. 중등과정 졸업생 김필주 씨(80)는 "내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선생님을 불러보지 못했는데, 내일학교에서 와서 마음껏 불러냈다. 이제 은행에 가도 떨지 않고 이름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며 "배움의 길을 열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내일학교는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초등과정 103명, 중등과정 823명을 배출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 대한민국 산업구조 혁신... 지속가능 미래 선도

FIX 2024 성공 개최 준비 총력 모빌리티·ABB·로봇분야 국내외 최고전문가 'FIX 컨퍼런스' 집결 비즈니스상담 이노베이션어워즈 문화관광까지 다양한 행사 마련

대구시가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Expo 2024, 이하 FIX 2024)'의 전시 콘텐츠 및 컨퍼런스 구성 등 마비지 행사 준비에 총력전이다.

행사는 이달 23-26일까지 4일간 엑스코에서 열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FIX 2024는 글로벌 혁신기술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박람회로, 대구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혁신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혁신기술 전시와 미래산업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는 FIX 202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미래산업분야의 전문 전시회를 FIX로 통합,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첨단산업 융합트렌드의 대표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왔다. 전시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ABB,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최첨단 기술과 산업의 생태계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성으로 현대차, 기아, 테슬라, ABB, 로앤리, KT, SK&C 등 글로벌 혁신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각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서 수준급 컨퍼런스를 비롯해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이노베이션 어워즈(혁신기술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FIX 2024를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혁신기술 통합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전시는 △모빌리티, 로봇, ABB, 스타트업 등 4개의 전문화사 △혁신기술 분야별 컨퍼런스 △구매·수출상담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모빌리티 시승행사 등 시민체험으로 구성된다.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가 열리는 엑스코 동관에서는 UAM, 자율주행, 2차전지, 부품, 서비스 등의 기술혁신 트렌드를 확인한다. 현대차, 기아, GM, 테슬라 등 완성차 기업과 삼성 SDI 등 2차전지 부품사들이 참가를 확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CES에서 선보인 모비온(MOBION)을 시연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CT, 메타버스 기술이 전시될 2024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에는 SK&C, KT 등이 참가한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 ICT 솔루션을 소개한다. 이스트소프트가 실시간 대화형 AI 휴먼을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서는 VR 기반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3번째 열리는 대구국제로봇산업전에서는 스위스 ABB 코리아, 미국 로앤리 연구소, 베어로보틱스 등이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부품·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된 로봇 솔루션을 선보인다.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신제품을 최초 공개한다. 스타트업 아레나(스타트업 전문전시회)를 새롭게 개최, 삼성 C-Lab, Plug and Play 등 스타트업 육성 전문가들과 80여 개 스타트업의 만남을 주선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 코리아 엑스포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페스티벌', 'Gaia-X(GE.U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행사도 동시 개최돼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모빌리티, 로봇, ABB, 스타트업 4개 분야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모빌리티 분야는 현대차와 제네시스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웨일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인 것으로 선정된 현대차 동차 이상엽 부사장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LG전자 V&S 연구소장 이상용 전무가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ABB,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 인더블로그 엑스코 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UCLA 테니스 홍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세계 최대 창업·입 육성기관 Plug and Play의 Jojo Flores 공동창업자 등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도 동시 개최된다.

역대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

개최 40여 일을 앞둔 FIX 2024는 30개국 바이어와 대기업 담당자들이 모이는 수출·구매상담회부터 미래 기술 트렌드를 엿보는 '역대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상담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개국에서 200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벤처캐피탈, 수출에이전트 등 바이어 60여 개사가 참석하는 구매상담회에서는 1대1 구매상담을 한다. 실리온벨리 혁신 미디어 The Millk가 주관하는 'Trend Show 2025 in Daegu & CES 2025 Preview'에서는 CES 2025에서 주목받는 기술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강연 세션이 구성된다. '신기술 발표회, INVEST IN DABGU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마련한다. 참관객을 위해서는 대구미술관을 비롯해 지난 3월(화) 개관한 대구 건축미술관 관람 및 대구시 터어 이용할인 혜택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 중이다. FIX 2024는 오는 30일까지 FIX 2024 누리집(fixkorea.or.kr)에서 사전 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의성농민회 "쌀값·의성마늘 생산비 보장하라"

지난해 10월 21만원대이던 쌀값 10개월 만에 17만원대 떨어졌다



의성군농민회 회원들이 11일 안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쌀값 보장' '마늘 생산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쌀을 불태우기 위해 도로에 쏟고 있다. (사진=의성군농민회 제공)

의성군농민회는 11일 안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쌀값보장' '의성마늘 생산비 보장' 등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21만원대이던 쌀값은 10개월 만에 17만원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45년만의 쌀값 폭락이라던 2022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도로 했다. 이어 "정부는 수년간 쌀이 쌓이는 이유를 소비량 감소와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쌀 자급률은 94.3%

로, 쌀값 폭락의 진짜 원인은 국내 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년 들어오는 40만 8700t의 수입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생산량의 11%에 달하는 수입쌀이 밀물처럼 밀려와 공급과잉을 불러오고 있다"며 "우리쌀의 설 자리를 빼앗고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쌀값 20만원은 사실 생산비 상승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쌀값 폭락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늘하면 의성, 의성하면 마늘이지만 올해 의성마늘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의성마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준 의성군농민회장은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은 결국 국민의 주식인 쌀을 동물 사료 용으로 전락시켰다"며 "수입쌀은 계속 들어오면서 국내 생산되는 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전락시킨 정부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쌀을 천대하는 정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화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추석 명절 선물은 “경북도 우수상품”으로 준비하세요

2024 추석맞이 우수제품  
경북도청 ‘특판전’ 개최...  
89개사 300여개 제품 선봬  
최대 30% 할인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추석 명절 선물은 경북도 우수상품으로 준비하세요”  
경북도와 일선시군이 추석명절 우수상품 홍보전에 나섰다.  
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 도청 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 추석맞이 경북 우수제품 도청 특판전’을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설했다.  
행사에는 △경북도 중소기업 인증브랜드인 실라리안 △사이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청년기업

(패션프루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에는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이들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포항에서 생산된 아열대 과일은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특유의 뛰어난 맛과 신선함으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추석에는 이들 아열대 과일의 판매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며 최고의 선물로 손꼽힌다.  
애플망고는 완전히 익은 후에 수확해 소비자에게 택배로 공급해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프리미엄 과일이다.  
백향과는 특유의 상큼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최근 건강 증진을 위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추석맞이 과일 고집품의 아열대 과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배 농가와 유통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시농·특산물 추석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앞서 1월 진행된 영주장날 설맞이 합인행사 영주장날 고객들의 큰 성원으로 9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지역농·특산물 온라인 시장의 대표 쇼핑몰의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다.  
2006년 문을 연 이래 올해 18주년을 맞은 영주장날 온라인 쇼핑몰은 ‘따뜻한 희망을 찾는 농민과 영주시가 함께 만든 영주농특산물 공식 쇼핑몰’로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사과, 인삼, 한우 등 우수한 영주시의 농특산물을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영주장날은 △제휴 쇼핑몰 확대 △매일, 분기별 자체몰 프로모션 △상품 다양화 및 품질관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2023년 매출액 약 57억원, 경북도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내 매출액 1위를 달성했다.  
영주는 국내 사과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전국 대표

봉화장터에 가입한 회원들은 봉화사과를 비롯한 한우, 조청, 장류 등 봉화장터 전 상품을 구매 금액의 2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한계정당 1회,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봉화장터는 청정 봉화에서 정성껏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현재 봉화장터에는 관내 89개의 업체가 입점해 다양한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태백산맥의 남단에 있는 봉화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봉화사과는 육질이 곱고 단단해 맛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높으며, 약제 사용을 최소화해 깨끗한 사과를 맛볼 수 있다.  
봉화고추는 열매껍질이 두껍고 색이 선명하며, 윤기가 있어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감자, 고추장 등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등 89개 업체가 참여한다.  
가공식품, 간편식, 농·수산 제품, 목공예품 등 300여개 제품을 현장에서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무료 시식·시음회 진행,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톨렛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행사장 방문 고객들이 행운을 잡는 재미도 선사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에서는 소비자에게 경북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추석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판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번 행사는 설에 비해 참여기업 제품을 확대한 만큼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 포항 ‘애플망고’ ‘백향과’**  
올해 추석 선물로 포항에서 생산한 ‘애플망고’와 ‘백향과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344만 가지 먹방 유튜브 ‘홍삼이네’와 협업해 과일 홍보와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아열대 과일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해 매년 지원을 증가해 현재 3,3ha(18동)에 바나나·애플망고·백향과·한라봉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영주시 청정지역 우수 특산물 인기몰이**  
영주시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yjmarket.cysco.co.kr)’에서 추석맞이 합인행사를 한다.  
‘추석맞이 합인 기획전’에선 영주시 대표 농특산물 사과, 한우, 인삼을 비롯한 미국류, 가공품 등을 최소 30% 이상, 축산물은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단, 할인 예산 소진 시 합인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9월 11일까지 영주장날 쇼핑몰과 제휴를 맺은 11번가에선 영주

사과주산지다. 소백산 자락의 풍부한 일조량과 성숙기의 큰 일교차,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등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재배되는 영주 사과는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나 현재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 납품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주한우는 불포화지방산과 올레인산 함량이 높고 맛이 뛰어나 2008년부터 16년 연속 한국경영인증원의 웰빙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건강 기능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풍기인삼을 활용한 홍삼젤리, 홍삼농축액 등 가공식품의 메카로 중국, 미국, 호주, 베트남 등 전 세계 16여 개국에 수출이 급진전되면서 글로벌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봉화장터’ 모든 상품 20% 할인**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장터’가 추석을 맞아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한다.

맛 좋기로 소문난 봉화 한우는 농장주가 직접 만든 자연 사료를 급여하며 다른 지역보다 낱씨가 추워 한우의 육질이 탄력이 있어 더욱더 쫄깃하고 연하다는 특징이 있다.  
봉화 집콕은 해발 400m에서 재배해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특히 쌀은 찰기가 있고 식감이 좋으며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봉화장터는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된 설맞이 이벤트에서 사과를 비롯한 한우, 조청, 참기름 등 24개 품목을 판매해 총 3천350개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도 봉화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장터 쇼핑몰은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온라인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 공백 없다” 대구시 경북도 총력태세 갖춰

### 추석명절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대구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이 안전 건강한 명절 보내는 의료·방역 대응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의료공백 최소화해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사전에 확인, 필요시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추석 연휴 시민들과 대구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구시

추석 연휴(9월14~18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일평균 약 2배 늘어난 규모인 3580여 개로 대폭 확대한다.

시와 9개 구·군 보건소에 의료·방역 상황반 운영 및 공공·민간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동안 비상 의료·방역 상황반(대구시 및 9개 구·군 10개 반 115명)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상황실과 응급의료 및 감염병 발생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 신속한 상황 보고와 전파 및 대응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19개 응급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1 집중 관리해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한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명절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공백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6개 센터급 응급실에 연휴기간 중 의료진 1명을 보강한다.

인건비 1억44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연휴기간 문여는 의원들의 추석 당일 비상진료 지원인력(간호사 등) 수당도 1200만 원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이다.

연휴 기간 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 및 2개 응급의료시설에서는 평소처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경증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은 1700여 개, 약국은 1880여 개로 일 평균 340여 개소 이상을 지정·운영한다.

명절 당일만 진료를 보던 예년과 달리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연휴 기간 내내 대구시 모든 보건소에서 비상진료(오전 9~오후 6시)를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군위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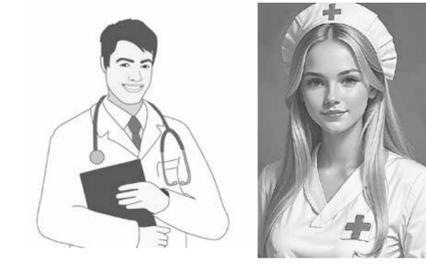
보건진료소는 연휴기간 하루씩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대구의료원도 올해 처음 명절 연휴 기간(9월16~18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와 중심의 외래진료를 제공한다.

야간 시간대 시민들이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공공약국(심야·자정약국) 10개소를 운영하고, 편의점 등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소 1,961개소에서도 해열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추석 연휴 코로나19 발열클리닉 4개소와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6개소,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571개소와 약국 401개소를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지정병원을 이용하도록 안내, 대형병원 응급실 혼잡현상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위



주로 응급실이 가동되도록 한다.

코로나19 등 추석 연휴를 전후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30일까지 지속 운영한다.

명절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맹기열, 홍역 등의 해외유입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 현황과 운영시간은

대구시, 구·군 누리집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의사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대응

대구시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7개월간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대구광역시 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합의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마련했다.

중증환자 신속이송시스템(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 병원 선정이 어려운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통한 환자 이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타시도 대비 중증환자가 수용병원을 찾지 못해 장시간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1월 4건 → 8월 9건, 23배 증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타지역 전원율도 7월 기준 전국 평균 28.4% 대비 20.3% 수준이다.

6개 센터급 병원장들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와 응급질환 수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배후 최종 치료 수용력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중증도별·진료과목별 전원 및 진료협력에 대해 전원 핫라인을 74→118개소로 확대, 기존의 대구형 응급의료체제와 병행한다.

중증도별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진료과별 입원환자 회복 정도에 따른 전원 회송을 강화했다.

시는 타시도보다 지역 의료계와 오랜기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현재까지 대구시 비상진료체계를 문제없이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구소방, 비상운영 체계 돌입

대구소방안전본부부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3일(금)부터 119종합상황실을 비상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28~10월 36일) 하루 평균 119신고는 1,727건으로 2023년 일 평균



1,428건 보다 21% 증가했다.

병·의원 안내와 응급처치 등 각종 구급 상담 분야는 일 평균 대비 24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예년 연휴보다 각종 안내와 상담 등 119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상황관리 접수대 및 인력을 보강해 운영한다.

추석 연휴 대형 재난으로 인한 신고 폭주 상황을 가정해 상황근무자 전원에 대한 비상수보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 대응반 3개 팀 40여 명을 편성해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다.

엄준옥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과의 원활한 협력을 제공하는 등 시민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경북도는 추석 연휴전후인 11~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응 구간으로 정했다.

24개 보건소와 함께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추석명절 비상의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연휴기간 중증환자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석명절 비상의료관리대책을 응급, 재난, 감염병 3개 분야로 나누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비상의료 관리상황반을 운영, 도내 병·의원 등 응급의료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한다.

응급의료기관별 전담책임관(29곳, 58명)을 지정, 연휴 기간에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진료 체계를 유지해 응급환자 비상 진료 및 긴급 이송체계를 확보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452개소, 약국 920개소를 지정한다.

코로나19 발열클리닉 3개소와 협력병원 6개소를 지정, 도내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의 경우 명절에도 아픈 아이가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 응급실 4개소(포항, 경주, 안동, 구미)를 운영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는 대구·경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으로 연계해 치료받게 한다.

재난 및 다수 사상사 발생에 대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수 인명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신속대응반(24개 반, 358명)과 도내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현장 응급의료 지원과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는다.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가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먹는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기관(667개소)을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가동한다.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강화로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에 철저히 대응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도 및 시·군 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보건소 누리집, 포털사이트 내 ‘명절 병원/약국’, ‘연휴 병원/약국’, ‘문 여는 병원/약국’ 등 검색,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스마트폰 어플 등을 활용하면 된다.

김성용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fb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꼭 같은 노후 설계 찬스~

**농지연금**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나부터 청령하GO! 우리 함께 청령하GO! 모두 청령하GO!”

**ki** 한국농어촌공사 **fb** 성주지사

KRCF 시·도 지정농지은행 (농촌지역연인원리 제 C-2021-0081892)

■ 대구시, 구·군 보건소 비상 의료·방역상황

Table with 10 columns: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Rows show phone numbers for each area.

■ 문어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9.10. 기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9.14.(토), 9.15.(일), 9.16.(월), 9.17.(화) 추석, 9.18.(수). Rows show 병·의원 and 약국 counts.

\* 명절 연휴 전일까지 추가 모집 중으로 변동 가능

■ 코로나19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Table with 2 columns: 발열클리닉(4개소), 진료협력병원(6개소). Lists hospital names and their locations.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9.10. 기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9.14.(토), 9.15.(일), 9.16.(월), 9.17.(화) 추석, 9.18.(수). Rows show 의료기관 and 약국 counts.

\* 명절 연휴 전일까지 추가 모집 중으로 변동 가능

■ 응급의료기관 현황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응급의료기관명, 소재지, 응급실 연락처. Lists emergency rooms across various districts.

\* 연휴기간 응급실 내원환자 증가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어, 응급환자의 경우 119를 통해 의료상담 요청 필요

■ 야간 운영 공공약국 현황 (10개소)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운영시간, 약국명, 주소, 연락처. Lists public pharmacies with night services.

■ 추석 명절 당일 문어는 병원 명단 (21개소)

Table with 5 columns: 연번, 의료기관명, 주소, 운영시간, 전화번호. Lists hospitals for the day after the holidays.

\* 명절 연휴 전일까지 추가 모집 중으로 변동 가능

■ 추석 명절 당일 문어는 의원 명단 (34개소)

Table with 5 columns: 연번, 의료기관명, 주소, 운영시간, 전화번호. Lists clinics for the day after the holidays.

\* 명절 연휴 전일까지 추가 모집 중으로 변동 가능



Infographic titled '함께 지켜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Includes sections for '일상생활에서' (washing hands, masks), '고위험군' (avoiding crowds), and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masking, avoiding crowds).

■ 추석 명절 당일 문어는 약국 명단 (111개소)

Table with 5 columns: 연번, 의료기관명, 주소, 운영시간, 전화번호. Lists pharmacies for the day after the holidays.

# 따뜻한 온기가 퍼져가는 경상북도 만들기 '한뭇'



영양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대구 북구 구암동, 저소득층 상품 전달



대구 중구, 추석맞이 나눔 행사



청송군 한가위 풍성한밥상 나눔행사



영양군언론협회, 불우 이웃돕기



청송,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청송군, 한가위 밥상 나눔행사  
김천 개령면, 전통시장 장보기  
수성구, 13일까지 복지시설 위문

### ■ 영양군언론협회, 불우 이웃돕기 상품

영양군언론협회는 지난 10일 추석을 맞아 영양군의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상품(식용유세트, 100여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영양군언론협회는 군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언론 본연의 역할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과 기부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남승모 회장은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라며 "이번 기탁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협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지역을 위한 애정과 관심이 고맙고 감사하다."라며, "기탁된 장학금과 상품은 영양의 미래 인재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 ■ 청송군,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청송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10~14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의 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며, 9월 10일 현동전통시장을 시작으로 9월 14일 청송전통시장까지 군 공무원과 관내 기관, 단체 등 약 600여명이 참여하여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군은 물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 인상 및 담합행위 등을 점검함으로써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과 환경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하시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영양 일월면, 대구시 농산물 직거래

영양군 일월면은 영양군청 재무과 직원, 일월면 농가와 함께 10.11일 양일간 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 에너리이공원에서 영양군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자회 회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견고추, 고춧가루, 건나물, 포도, 버섯 등을 판매하여 대구시 지산2동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영양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전국 으뜸 영양군 농·특산물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찾아가 판매함으로써 농가들에게는 판로 개척과 소득증대를, 행사장을 찾은 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동장 윤관영) 주민들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박형일 일월면장은 "최근 8월 지속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일손 부족으로 이종고를 겪는 농가에 이번 직거래행사로 작은 위로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직거래 행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다양한 판로망을 구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김천 개령면·이장협, 전통시장 장보기

김천 개령면은 개령면 이장협의회와 황금시

장에 방문해 장보기를 실시한 데 이어 9일 개령면 농촌지도자회와 황금시장에 재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개령면은 매년 명절에 앞서 직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해왔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개령면 이장협의회에 이어 농촌지도자회 개령면에 뜻을 모은 두 번째 단체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개령면과 개령면 농촌지도자회는 지역화폐로 추석 명절 음식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령면 농촌지도자회 나재호 회장은 "매년 실시하던 장보기를 이번 명절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뜻깊은 목적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차원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임동환 개령면장은 "이번 추석에는 개령면 내 많은 단체가 장보기 행사에 힘을 보태주었다. 개령면은 앞으로도 매년 보고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청송군 한가위 풍성한밥상 나눔행사

청송군은 지난 10일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가위 풍성한밥상 나눔행사'를 추진하여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재향군인회여성회 소속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해 소불고기, 전 3종, 떡, 햅쌀로 구성된 명절 음식꾸러미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으며, 홀몸 어르신 및 1인 중장년 취약계층 210가구에 전달하였다.

재향군인회여성회는 매년 다방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와 기부활동으로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시는 재향군인회여성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온기가 퍼져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영양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영양군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11일부터 영양전통시장 일대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최근 침체된 경기 속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영양군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들도 참여하여 큰 힘을 보탰다.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영양군청 직원들은 영양전통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 민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넉넉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대구 수성구,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구 수성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수성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의 일환인 이 행사는 소외계층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이어져 왔다.

구 본청, 보건소, 의회에 속한 32개 부서 직원이 행사에 동참해 명절마다 부서별로 결연을 맺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올 추석에도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수성구청 공무원들은 결연을 맺은 18개 사회복지시설에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올해는 특별히 환경지킴이'뽀뽀'도 함께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에게 큰 웃음을 선물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명절을 맞아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눠 사회 곳곳에서 나눔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돌봄과 복지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 ■ 대구 북구 구암동, 취약층 상품 전달

대구 북구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50세대에 추석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꾸러미 전달사업"은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착한가게 등 후원자들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무연고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추석 선물꾸러미를 장만하여 전달하는 사업이다.

장영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장은 "풍성한 한가위에 소외된 채, 쓸쓸한 추석을 보내는 이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추석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저희가 정성껏 장만한 선물꾸러미 받으시고 행복한 추석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연주 구암동장은 "추석 선물꾸러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성금을 기부해준 착한가게 등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착한마을 구암동의 명성에 걸맞은 각종 특화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 대구 중구, 추석맞이 나눔 행사

대구 중구는 추석을 맞이한 10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밝은 보름달처럼 빛나는 한가위를 만들기 위한 이날 행사는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영숙) 주관으로 복지관 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성에너지(주), ㈜한국클래드텍에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 추석맞이 물품 꾸러미를 포장했다.

정성과 사랑을 담아 포장한 추석맞이 물품 꾸러미는 프라이팬, 부침가루, 식용유, 라면 등으로 구성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250세대에 전달했다. 참여한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는 직접 꾸러미를 배달하는 등 정성을 더하고, 행사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 간에 한가위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따뜻한 정을 나누어 준 모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 영주시 선비세상 '한가위 큰잔치'

추석을 맞아 경북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인 '한가위 큰잔치'가 펼쳐진다.

'풍류, 풍년! 선비의 달맞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선비세상 잔디광장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놀이, 레트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가위 가을운동회'가 14일부터 18일,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떡거리 존' 및 지역문화예술인 버스킹 공연인 '선비세상 한마당'도 열린다.

한음악당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14일과 15일에 탈북민 공연단체의 '홍겨울 우리가락 한마당; 예술공연', 16일에는 흥부전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윤문식의 싸가지 흥부전'이 진행된다. 17일과 18일에는 아동극 '오리아빠가 된 대가'가 진행된다.

컨벤션홀에서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덴둥어미' 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캐릭터 심어롱 쇼 및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추석 연휴 동안 명절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데이 쿠킹클래스', 16일과 17일에는 삼현육각의 연주에 맞춰 줄광대 놀음과 어릿광대 놀음으로 구성된 '줄타기 퍼포먼스' 상설 프로그램이 소원등 만들기 등 전통놀이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되었다.

선비세상을 위탁 운영 중인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관계자는 "이번 한가위 큰잔치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며,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풍성한 한가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5년 연속 익명의 쌀기부... 지역 이웃 돕기 훈훈”

## 상주 낙동면에 240kg 기탁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 250가구에 식품 배달

### ■ 상주 낙동면 익명 기부자 쌀기부

상주시 낙동면에서는 추석을 앞둔 10일 익명의 기부자가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햅쌀 10kg 24포를 기탁했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쯤이 되면 본인의 신분은 절대 밝히지 않으며, 주변 지인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많은 양의 햅쌀을 낙동면행정복지센터로 기부하며, 소리소문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국 낙동면장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햅쌀을 기부해주는 익명의 기부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처럼 이 햅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 김천시 조마면 광불사, 성품 전달

김천시 조마면에 있는 광불사는 지난 11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70포를 조마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음력 7월 15일)과 추석 명절을 맞아 광불사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광불사 주지 해원스님은 “무더위로 지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드리고 싶어 작은 정성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문 조마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을 위해 나눔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소외된 이웃들을 두루 살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 ■ 영주시, 장애인 생활시설 위문품 전달

영주시는 추석을 맞아 10~13일까지 4일간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에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32개소에 생활하고 있는 1,120명에게 시민들의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문품은 쌀과 화장지 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11일 만수촌 등 9개 시설을 직접 방문한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설 생활자와 직원들을 위문하고,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지시설 관계자는 명절마다 시설을 방문하여 종사자와 생활자를 격려해주는 박남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항상 어르신들을 내 부모같이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설 생활자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평소보다 의로움이 더 커진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외로움을 달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의성군의회, 육군 제3260부대 방문

의성군의회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10일 의성읍에 소재한 육군 제3260부대 4대대를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연휴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성군의회의원들은 기나긴 무더위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

최훈식 의장은 “우리 군민들이 가족과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군인 장병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토방위와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 ■ 한국도로공사 영주시사, 성품 전달

영주시는 11일 한국도로공사 영주시사가 추석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300만 원과 고춧가루 1kg 28포(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한국도로공사 영주시사의 추석맞이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영주시는 기탁된 물품을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영주시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종우 영주시 복지정책과장은 “한국도로공사 영주시사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영주시사는 매년 명절마다 영주시에 4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이웃 돕기 활동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추석을 맞아 11일 유천면 내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유천면에 거주하는 4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당 지원금 10만원과 쌀 20kg 2포, 라면 2박스, 화장지 2박스를 전달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평소에도 소음 피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농촌 일손돕기, 비행장 인근 주민 초청 행사 등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원희 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이웃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 울진군 ‘온(溫)가득 한가위’ 봉사 활동

울진군은 지난 10일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추석 명절 맞이 온(溫)가득 한가위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溫)가득 한가위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은 명절맞이 집중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북 자원봉사 주간 추석맞이 사랑의 온(溫)가득 릴레이 후원금이 더해져 보다 더 풍성한 꾸러미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활동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대게 김, 한과와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을 넣어 끼니와 간식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성껏 포장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 이웃 250가구의 집 앞까지 배달하였다.

한 참가자는 “매년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꾸러미를 전달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며, “전달받는 분의 환한 미소에 이웃의 명절을 따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 영주시, 서울서 직거래장터 운영

영주시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열린 ‘2024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장터’에서 특산물인 영주한우를 판매, 서울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강남구청과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직거래장터는 전국 50여 개 지역, 80여개 생산자가 참여해 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행사로 영주시는 영주축협이 참가해 대표 특산물인 영주한우를 판매했다.

영주한우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3년부터 매년 직거래장터에 초대받아왔다. 강남구민들에게 신뢰를 쌓아 매년 판매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날 행사에서도 6

천5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완판됐다.

또한, 시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친선도시 홍보관에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영주장날’ 쇼핑몰을 적극 홍보했다.

‘영주장날’은 경상북도 대표 쇼핑몰인 ‘사이소’에서 최근 3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하며 경상북도 내에서 대표적인 쇼핑몰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57억 원에 달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대도시와 교류를 통해 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통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와 서울 강남구는 1998년 2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대표단 교류, 대표축제 참가, 체육대회 참가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 대구 대현동 새마을부녀회, 음식 나눔

대구 북구 대현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일,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수제 고추장, 곁절이김치를 정성껏 담아 만든 온누리 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대현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추석을 맞아 보듬달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손수 고추장, 곁절이김치 꾸러미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하였다.

손선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나눔에도 기뻐하시는 이웃을 보며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항상 내 일처럼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현 대현동장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실천한 새마을부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따뜻한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문경, 휴게소서 친절 계몽 운동

문경시는 10일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절·스마일 운동과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원원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와 함께 전개한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문경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문경시민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간절한 염원을 알려 그 뜻을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휴게소 하행선 내 식품점업소를 대상으로는 위생용품과 친절포스터를 배부하고, 문경을 대표하는 얼굴인 휴게소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고객맞이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문경시는 그동안 무한친절 세계1등 친절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우수업소 선정, 음식점 친절 향상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성원 식품위생과장은 “위생업소에 친절 스마일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친절한 문경만들기에 더욱 힘쓸 것이며, 아울러 귀성객들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진 문경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응원하고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밝혔다.

### ■ 의성군 조문국사적지 코스모스 만발

의성군의 대표적 국가유산이자 관광지인 조문국사적지에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코스모스가 만발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문국사적지는 2020년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매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년 5월이면 고분군 내 위치한 작약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고분군 산책로를 따라 지난 6월에 식재한 코스모스가 만개하기 시작하여 가을 분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삼한시대 초기 국가였던 조문국의 실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고분군 사이 산책로를 따라 거닐며 코스모스 향이 전하는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며 가을을 미리 만끽할 수 있다.



# 月刊 정치와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일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